

“혈액형별 궁합 결혼에 無영향”

결혼정보업체 ‘선우’

혈액형별 궁합이 실제 교제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업체 ‘선우’ 부설 결혼문화연구소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교제 중인 1만6천338쌍과 결혼한 1천366쌍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이 교제하거나 결혼한 남성의 혈액형별 분포가 고르게 나왔다고 8일 밝혔다.

교제 중인 커플의 경우 O형 여성은 O형, A형, B형, AB형 남성과 교제하는 비율이 각각 25.8%, 27.8%, 26.7%, 27.9%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A형, B형, AB형 여성도 교제하는 남성의 혈액형별 분포가 각각 34.6~36.7%, 25.8~28.2%, 9.8~10.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A형 여성과 B형 남성의 교제 비율이 36.7%로 오히려 다른 혈액형의 교제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속성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차대표 피습 한나라당作’

인터넷 올린 네이즌 무죄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박 대표 피습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간요법 알고보니 재미있네요”

어린 시절 배앓이를 하면 어머니들이 “엄마 손은 악 손”을 주문처럼 외우며 배를 살살 어루만졌고, 신기하게 아픈 배가 나았던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체했을 때 콧김이 담긴 바늘이 실로 동여맨 엄지 손가락을 찌르면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이상하게 속이 편안해졌던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의학의 발달과 함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로 사라진 민중의술. 요즘 민중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민중의술 살리기 광주·전남 연합’ 사무실에는 2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데 여념 없었다.

“맥(脈)만 가지고도 오장 육부의 병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맥은 엄지손가락 쪽 팔뚝 굽어지는 곳에서 자기 손가락 한두 개의 폭과 거의 같은 자리에서 찾으면 돼요. 자! 깊어 보세요.”

박행삼 회장(71·세계침구의학 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자신의 손목을 더듬는다.

“이 맥을 다시 ‘촌(寸)’·‘관(關)’·‘척(尺)’의 세 부위로 나누면, 오른쪽과 왼쪽을 합해서 ‘유맥(六脈)’이 되지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학생들은 변호사·가정주부·학생·교사 등 직업·연령이 다양하다. 현재 350명의 회원이 강의를 듣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700여명의 회원을 배출했을 정도로, 민중의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뜨겁다.

이들은 물론 민중의술 배우기에 나선 것일까. 대체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모(48·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는 4년 전 유통으로 고생하다 침·뜸·사혈로 이를 고친 후 민중의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씨의 관심은 공부로까지 이어져, 지난 3월 남부대학체육학과에 입학,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양모(50·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의료혜택에



민중의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민중의술 살리기 광주·전남 연합 사무실에 모인 수강생들이 ‘유맥(六脈)’을 찾는 실습을 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서 소외된 노인들을 돋기 위해” 민중의술을 배우고 있다. 9개월 전부터 노인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양씨는 “노인들에게 침·뜸 등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씨는 노인들에게 침·뜸 등 의료시술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25조 1항) 때문이다.

김남표(63) 민중의술 살리기 광주·전남연합회장은 “FTA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 침구사를 이 합법적으로 침술 의료행위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민중의술의 합법화를 위해 의료정책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운동과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경기자 viola@kwangju.co.kr

해남군, 교부금 등 4억여원

12년간 공무원 개인통장에

“사업비 관리 엉망” 비난

해남군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비 및 청탁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지 않은 채 담당 공무원이나 면장 개인 통장에 수십만 원 뒤 사업비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이 같은 비난이 제기되자 오는 11일 읍·면·장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교부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남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14개 읍·면에서 1천300건에 4억여 원을 주지 않았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20세이상 무자녀 일때만 性전환

여자로 바꾸려면 병역 마쳐야 대법원, ‘성전환 지침’ 마련

성전환을 하려면 20세 이상 무자녀일 때만 가능하며 호적상 남성이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별 정정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호적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별 정정에 필요한 재판 절차나 호적기재 관련 사항을 담은 예규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없어야 한다.

특히 여자로 성별을 바꾸려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나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성별정정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면탈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병적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게시판’

9월 9일 행사는 ▲2006 광주 업의 날 행사=

오전 10시 첨단체육공원 일원. 1부 체육행사·광산업체 직원 장기 자랑, 오후 8시 2부 축제한마당 등으로 진행.

▲제 4회 목포사랑 은빛 갈치 축제=개막식 오후 6시40분 목포시 평화광장. 10일까지 이틀간.

▲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축제=오전 10시30분 영암군 실내체육관, 외국인주부 500명 등 다문화 가정 1천400여명 참가해 민속 의상 경연대회 및 민속축·가족 어울림대회.

▲선클라비어 정기연주회=9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전국 해변댄스스포츠 경연대회=오후 6시30분 목포시 평화광장.

▲어린이 캐리어 뮤지컬 ‘개구리 증자’=9일(토) 오후 11시·오후 2·4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고군문 회동리 홍주 하우스. 오후 5시30분 박범준 중앙대 총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홍사도(홍주를 사랑하는 모임)

발대식.

<10일>

▲제 3회 전국 해변댄스스포츠 경연대회=오후 6시30분 목포시 평화광장.

▲어린이 캐리어 뮤지컬 ‘개구리 증자’=9일(토) 오후 11시·오후 2·4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선클라비어 정기연주회=9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전국 해변댄스스포츠 경연대회=오후 6시30분 목포시 평화광장.

▲어린이 캐리어 뮤지컬 ‘개구리 증자’=9일(토) 오후 11시·오후 2·4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3회 토요민속여행=9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2회 전국 가사·시조 낭송 경연대회=9일(토) 오후 2시 광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홍주 명품화’ 성공전략 세미나 및 홍사도 별대식=오후 2시 진도군 항로문화회관 대공연장.